





# 본교 관련 주요 기사

## 세계일보

24면

### “장애·비장애 ‘차이’ 인정하는 사회 꿈꿉니다”

뇌병변 1급 홍성훈씨 대학 졸업  
“소수자들 다룬 문학 연구할 것”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에게 평범한 것이 장애인에게는 특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며 차이를 인정해 줬으면 합니다.”

장애를 딛고 25일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는 홍성훈(25·사진)씨는 24일 “주변의 지나친 관심이 때로 불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뇌병변장애 1급인 홍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말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힘들다. 대학 생활 4년간 손가락 하나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주변



사람과 소통했다. 홍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보냈다. 집에서 오전 7시에 나와 재활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가 수업을 들었다. 학교 교지편집위원회와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동아리, 한국관광공사 여행지 모니터링 대학생기자단 등 교내외 활동도 열심히 했다.

홍씨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부모님과 장애학생지원센터 강은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씨는 졸업과 동시에 성균관대 국문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현대문학을 전공한다. 홍씨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수자들에 대한 문학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 경향신문

23면

### “수업 버거웠지만 문학 보는 새 시각 가져”

‘뇌병변장애 1급’ 홍성훈씨, 성균관대 국문학과 졸업

“수업이 어려워 고통스러울 정도였지만 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을 이기고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는 홍성훈씨(25·사진)는 졸업식을 하루 앞둔 24일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홍씨는 중증장애를 안고 있어 말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 지난 4년 대학 생활 동안 손가락 하나로 노트북 키보드를 쳐서 주변 사람과 소통했다. 학교는 휠체어를 타고 오갔다.

“물론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죠. 하지만 그들에게 평범한 것이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주면서 차이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누구보다 문학을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서울 성산동 집에서 오전 7시에 나와 재활치료를 받고 등교해 문학 수업을 들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시와 소설을 읽고 집에 와서는 글을 쓰다가 새벽에 잠들었다. 창작에도 재능을 보여 ‘파도’라는 시로 성대 문학상에 당선됐다. 이 밖에 교내 교지편



집위원회와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동아리 등에서 활동했다.

홍씨는 현대문학을 계속 공부하기 위해 성균관대 대학원 국문학과에 진학한다. 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느라 지난해 2학기부터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지낸 끝에, 반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학자의 길을 꿈꾸는 홍씨는 “처음에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책을 읽었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책 속에서 내 얘기를 찾고 있었다”며 “대학원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수자들에 관한 문학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 본교 관련 주요 기사

세계일보 1면



법안 처리 지연 국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기사 5면) 청와대사진기자단

## “신대북정책 불가피... 일관성 유지해야”

박근혜정부 4년차... 외교안보 전문가 설문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전면적 대북압박 정책과 관련,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신대북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일관성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다만, 향후 성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그러나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1년 만에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선 것은 최근 북한 도발로 야기된 남북관계 경색과 한·중 간 외교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6·8면>

세계일보가 24일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한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간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 평가 △대북 압박정책 평가와 전망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대중국 외교 △향후 정책기조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설문조

남북관계 환상 접고 현실로  
한·중관계 손상 등엔 우려도

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7명이 지난 3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장점으로 부각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거둬들이므로써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격상 등으로 인해 대중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 시점에선 퇴보할 가능성이 크고, 한·미 동맹에선 우리 자율성이 축소되고, 대미 의존도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시 상황에선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던 것이 지금 돌아해보니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김정은정권과 상대하며 주변 4강과 균형외교를 추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정책 자체의 방향성은 좋았다. 독자적으로 하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목소리를 내면서 온 것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을 착하게 변화시킨다는 ‘선교사적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압박정책은 남북관계의 환상에서 현실에 입각한 정책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환상에서 현실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염문재 전 국정원 1차장**(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원장)은 “박 대통령이 선택한 대북압박정책은 성공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른 대안은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본교 관련 주요 기사

국민일보  15면  
www.kmib.co.kr

MOBILE  
WORLD CONGRESS

갤S7, G5

## 화끈한 소통맨

공대출신 삼성 고동진 사장, 고객 요구 반영 완성도 높여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에서 나란히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S7과 LG전자 G5는 추구하는 지점이 확연히 달랐다. 갤럭시S7이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G5는 누구도 하지 않은 독특한 시도를 통해 차별화를 노렸다. 외향적이고 활발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과 차분하고 전략적인 조준호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 사장의 상반된 성격이 제품에 그대로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 고 사

### 휴대전화 산증인

거의 모든 휴대전화 개발 참여  
스마트폰 오르내림 모두 경험  
소비자 중심의 기술 혁신 추구

장은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로 알려졌다. 방수·방진, 외장메모리 채택, 배터리용량 증가 등 갤럭시S7의 주요 기능은 고객과의 소통 결과다. 고 사장은 "소비자가 불만을 가졌던 부분은 무조건 반영한다고 정했다"고 소개했다.

고 사장은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1984년 삼성

전자에 입사한 후 거의 모든 휴대전화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승승장구하던 때와 어려움을 겪은 때를 모두 경험한 고 사장은 맹목적인 변화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갤럭시S7이 갈 방향이라고 확신했다. 취임 이후 22일(이하 현지 시간) 언론과 첫 만남을 가진 고 사장은 기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고 사장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드는 조직, 파트너에 존경받는 조직,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 게 자신의 3대 철학이라고 밝혔다.

특징만큼이나 다른 삼성-LG 수장



## 차분한 전략가

문과출신 LG 조준호 사장, 제품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

반면 조 사장은 냉정하게 LG전자 스마트폰의 현주소를 분석해 G5의 갈 길을 정했다. 정면대결보다는 의미 있는 대안이 되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사장은 23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두업체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그 제품보다 좀 더 좋다고 내세워 봐야 안 먹힌다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공개했던 G4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제품이었다고 인정했다. 실패한 과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자세는 G5가 혁신적인 제품으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을 적용한

### 실패 인정 솔직男

"전작 G4 기대 못 미치는 제품  
'1위'와 방향 같아선 안 먹혀"  
세계 최초 모듈방식 적용 호평

G5는 MWC 2016에서 언론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LG전자 초콜릿폰 신화의 주인공 공이기도 한 조 사장은 영화배우를 연상시키는 흰철한 외모, 차분한 말투로 G5 공개행사에서도 세련된 진행을 해 호평을 받았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술은 일절 마시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조 사

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LG전자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LG전자 스마트폰 부진이 사양 문제가 아니라 팬덤을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LG전자만의 매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 사장이 공대(성균관대 산업공학과·영국 석세스대 대학원 기술정책학과) 출신으로 제품 기획과 개발 전문가라면, 조 사장은 문과 출신 경영 전문가(서울대 경제학과·시카고대 대학원 마케팅학과)으로 대조적이란 점도 흥미롭다.

바르셀로나=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